

재건 중인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슈리성을 가까이서 감상해 보세요.

2019년 10월 31일 화재로 정전을 포함해 9개 시설이 소실됐습니다.

현재는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지원을 받아 ‘보여주는 부흥’을 주제로 한 걸음씩 착실하게 부흥을 위해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원 공사는 정전부터 착수 중입니다. 정전이 세워진 우나(御庭)에는 목재를 가공하는 ‘목재 창고’, 실물 크기의 도면을 그리는 ‘원척장’, 건축 중인 정전을 비바람과 먼지로부터 지켜줄 ‘가설지붕’이 세워졌으며, 병설된 견학 구역에서 유리 너머로 복원 공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상 주말에는 복원 공사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안내소

구호실

자전거·오토바이
주차장

음식점

화장실

AED
(자동심장충격기)

에스컬레이터

매점

수유실

대여 센터
(휠체어·지팡이·유아차)

엘리베이터

코인락커

기저귀 교환대

주차장

흡연소

무료 구역

유료 구역



4 고후쿠문



편액의 ‘고후쿠(広福)’는 ‘복을 널리 퍼뜨린다’는 뜻. 동쪽은 호적을 관리하는 ‘오쿠미자(大与座)’, 서쪽은 절과 신사를 관리하는 ‘지샤자(寺社座)’가 있었습니다.

5 호신문



3개의 입구 중 가운데 문은 국왕 등, 한정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문을 알리는 아침 의식 ‘우게조(御開門)’를 볼 수 있습니다.

6 현축장 견학 구역



슈리성 정전 건축에 사용되는 실물 크기의 도면을 그리는 곳입니다. 유리 너머로 작업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7 가설 지붕 견학 구역



이 안에서 슈리성 정전 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로 각 층에 설치된 견학 구역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습니다.

8 슈리성 부흥 전시실



사자 기와 등 화재 후 남은 물건과 전시의 슈리성 부흥을 위한 발자취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전시 내용은 공사 진척에 따라 바뀝니다.

9 요호코리덴



국왕이 승하하면 차기 국왕의 즉위 의례가 이루어지는 곳. 현재는 대형 모니터로 류큐왕국의 역사와 슈리성 정전 유구의 매력 등을 소개합니다.

10 아가리노아자나



성곽 동쪽에 세워진 전망대로 슈리성공원 일대와 나하의 거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東’을 현지 방언으로 ‘아가리(일본어로 올라온다는 뜻)’라 합니다.

1 슈레이문



편액의 ‘슈레이노쿠니(守禮之邦)’는 ‘류큐는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이다’라는 뜻. 오키나와 전투에서 파괴되어 1957년에 복원. 2000년 12월에 세계 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2 소노한우타키 석문



국왕이 외출할 때 이 석문 앞에서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부 파괴되어 1957년에 복원. 2000년 12월에 세계 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3 류히



용의 입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 이름의 유래. 즈이센문 바로 앞이며, 왕궁과 내빈의 소중한 식수였습니다.